

<2013년 4월 22일 월요일 새벽 잠언>

1. 새벽에 나와 다투는 자는 ‘잠’이다.
2. 잠에서 깨어나면 이긴 것이다.
3. 시간은 돈이다. ‘시간’이라는 돈은 제시간에 안 쓰면 사라진다.
4. ‘시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물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자기 보물을 하나하나 팔아서 쓰는 자와 같다.
5. 새벽꿈에 내 형제가 내게 맡긴 돈이라며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과 만 원 짜리와 천 원짜리 지폐 몇 장을 주었다. 이는 잠자고 남은 시, 분, 초를 돈으로 보여 준 것이다. (기도 후 새벽 3시 30분에 보임)
6. 돈은 안 쓰고 아끼면 그냥 있지만, ‘시간’이라는 돈은 제시간에 안 쓰면 사라져 버린다.
7.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좌우된다.
8.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원하시는 것에 시간을 써라. 이런 자는 시간을 일억 천만금같이 귀히 쓰는 자다.
9. 육신을 위해 시간을 쓰더라도 근본은 영혼을 위해서 써라. 이런 자는 시간을 황금같이 귀히 쓰는 자다.
10. 기도하여라.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일억 천만금같이 귀히 쓰는지 깨닫게 된다.
11. 마음과 생각이 신령해야 자동적으로 신령한 일에 정신이 쏠려서 육과 함께 신령하게 행하게 된다.
12. 시간을 완전히 뺏고 행하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공한다.
13.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엄히 시간을 빼앗아 행하신다.
14. 정한 시간이 지나면 절대 그 일이 안 되고 끝나니, 하나님도 그 시간에는 열 일 제치고 절대 그 일을 무섭게 행하신다.
1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미리 행하신다.
16. 못 할 것이라도 미리 하면 할 수 있다.
17. 미리 하여라. 미리 하라고 해서 가령 생일이 7일인데 5일에 생일잔치를 할 수는 없다. 미리 하라는 것은 7일이 되기 전에 미리 음식 준비를 해 놓고, 생일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을 미리 초청해 놓고, 생일을 위해서 미리 할 일을 해 놓는 것을 말한다.
18. 새벽 1시, 2시, 3시 등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 정한 시간대로 일어나려면, 미리 해야 된다. 제시간에 자는 것이 미리 하는 것이다.
19. 만사의 모든 일을 미리 하면 할 수 있다.
20. 하루에는 누구든지 갈 수 없는 길이라도 전날부터 미리 가면 갈 수 있다. 만사의 모든 일이 그러하다.

21. 50년 전부터 성자의 재림을 놓고 미리 기도하고, 나 자신이 마음과 정신과 육의 행실과 혼과 영을 만들고서, 주님을 맞도록 신령하게 칠보단장하고, 어떻게 성자가 오시는지 알고서 기다리니, 알고 성자 주를 맞았다.
22. 알면 맞고, 모르면 못 맞는다.
23. 미리 주를 맞은 자는 미리 주와 같이 즐긴다.
24. 주를 맞은 자는 성자를 맞고, 하나님과 성령님도 맞고 기뻐하며 산다. 영원한 돈도 부귀도 영화도 전능하신 삼위일체께 있다.
25.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시간도 자기 차원대로 쓴다.
26. 자기를 귀히 만들어라. 그러면 하루라는 같은 시간도 일억 천만금같이 귀히 쓴다.
27. 어린 자들은 시간을 쥐도 귀히 못 쓴다. 성장하고 깨닫고 알수록 시간을 귀히 쓴다.
28. 자기 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최고로 값있게 쓴다.
29. 신령하게 자신을 만들어서 시간을 써야 적은 시간도 많은 시간으로 귀하게 쓴다.
30. 시간이 없으면,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못 한다.

<2013년 4월 23일 화요일 새벽 잠언>

31. 2000년 동안 기다렸던 ‘휴거’ 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32.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는 지구 세상에서 재물·명예·권세·미·예술·지식으로 성공한 자들을 제치고 최고로 성공한 자다.
33. 세상^의 재물·명예·권세·미·예술·지식 등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고 가진 자라도 자기 영을 휴거시킨 자와 비교가 안 된다. 굳이 비교하자면, 컵의 물과 바다의 물과 같다.
34. 영이 휴거되면, 육도 땅에서 휴거의 삶을 산다.
35. 휴거된 영은 사랑하는 자 1억 명이 사랑하며 주는 사랑의 기쁨보다 더 성자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36. 세상 어떤 재물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을 다 합쳐도 휴거된 영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집 한 채 값이 안 된다. 집에 딸린 정원 값은 상상도 못 한다. 어떤 영이 천국에 가지고 있는 정원은 세상의 차로 하루 종일 가도 끝이 안 보이는 황금 보석 길로 되어 있다. 그러니 휴거된 영이 가지고 있는 것과 세상 재물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이 비교가 되겠느냐. 지구 전체를 다 팔아도 천국의 집 한 채를 못 산다. / 시간이 가면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지구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100% 없어진다. 해가 지듯이 점점 없어진다. 이때는 하나님의 땅을 향한 계획이 끝나는 날이다.
37. 휴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면, 이성의 행위로 자기가 휴거를 깨부수고 휴거의 길을 벗어난다.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38. 미련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합당치 않고, 명예와 영광이 합당치 않다.
39. 주를 친구로 보던 시대는 지나간 옛 시대다. 신약시대다.
40. 주를 애인으로, 신랑으로 대하는 시대가 왔다. 성약시대다. 고로 주는 친구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니, ‘사랑’의 타락을 하는 자는 주를 불신하고 배신하는 자가 되어 휴거 자격이 상실된다.
41. 신약시대는 오빠 앞에 자기 여동생이 다른 자와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 격이고, 성약시대는 자기 신부가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본 격이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진정 회개하고, 본래의 가치는 상실했지만 다시 조건을 세워야 다른 위치로 복직된다. 그렇지 않으면 쪼개져 남남이 된다. 전능하신 성자와 땅에 세운 자 앞에 그리되니, 결국 천국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이성 타락’으로 인해서 지구 하나를 잃은 만큼 큰 손해를 본 자다.
42. 육이 실패한 자는 영만이라도 열심히 하여 영적으로 성공하여라. 육도 영도 승리한 자는 최고로 행복한 자다.
43. 한 번 자기 육신이 사랑으로 타락되면 그때부터는 포기하고 막 산다. 회개하고 조건을 세우고 복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망치고 버리게 된다. 고로 주와 점점 멀어져 남남이 된다.
44. 죽은 자 가지고 시간 뺏기며 슬피 울면 더 손해다. 지구 세상에 구원할 자들이 너무 많다. 여호와 이레다. 예비된 자가 있다.
45. 사무엘아, ‘사울’이 불순종한다고 낙심 말아라. 하나님이 키우신 ‘다윗’이 있다.

46. 왕아, 불순종하는 ‘와스디’ 를 보고 실망할 것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미 ‘에스더’ 를 예비하셨다. 에스더는 와스디와 족속부터 다르다. 그 족속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족속이다.
47. 구시대 기성인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새 시대가 있다. 새 시대는 1000년 동안 흘러간다. 와 보아라! 완전한 진리로 전능자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6000년 동안 기다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있다. 또한 종교 최고의 역사, 하나님의 최고 역사, 곧 휴거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자를 다시 보내어 땅에서 행하고 계신다.
48.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 중의 하나와 같다. 한 명이 실망시켰다고 해서 낙심할 것 없다. 그 한 명을 대신하여 열 명의 별이 더 뜨게 하자!
49. 너 별도 할 수 있다. 한 번 지켜 본 것이다. 너를 안 지켜 보고 다른 자를 시키면 미련을 갖고, 주께 “왜 저는 지켜 보지도 않고 다른 자를 시킵니까?” 하지 않겠느냐. 지켜봤더니 못 하여 실천하는 자, 다른 자를 쓰는 것이다.
50. 인생 경주를 시켜서 1등 한 자는 1등 위치에 쓰고, 나머지를 또 경주시켜서 거기서 1등 한 자는 그 위치에 쓴다. 그렇게 하여 맨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은 혼자 뛰게 하여 1등 하면 그 차원에다 쓴다. 끝지도 계속하면 1등 할 수 있다. (킁킁.)
- 다시 쉽게 말하면, 3명이 있다 하자. 세 명을 경주시켜서 1등 한 자를 1등 위치에 쓴다. 두 명도 쓰려면, 나머지 두 명을 또 경주시켜서 거기서 1등 한 자를 그 위치에 쓴다. 마지막에 남은 자도 쓰려면, 그 사람 혼자 경주시킨다. 그러면 꼭 1등 한다. 그렇게 사람을 쓴다. 차원대로 쓴다.
- 그러니 전능자에게 주께 인정받게 전심으로 행하라는 말이다.
51. 지상영계의 혼체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육을 안 봐도 그 육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안다.
52. 잘해라. 저마다 자기가 행한 대로 천국에도 세상에도 그 공력을 쌓아 간다. 그리고 그 공력대로 천국에 집을 지어 가면서, 그 혼과 영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53. 자기중심대로 행해 놓고 공력이 다 무너져서 탄식한다. 다시 이를 갈며 쌓지 않고 포기하면, 그 혼도 영도 공짜로 지옥 집에 가게 된다.
54. 자기가 수고해서 행하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왜 행하지 않느냐.
55. 놀면서 행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하지 않고, 그래 놓고서 남들이 눈물겹게 행하여 행한 대로 받고 누리면 시기 질투하고 외면한다.
56. 가다가 만 자는 징검다리과 같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오르는 계단과 같다. 그래도 그때 그 순간 징검다리과 계단이 필요했다. 사울과 와스디도 계단이었다.